

■ 특특뉴스

SKT, 구독형 디지털 트윈 개발

SK텔레콤은 국내 중견·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안전 제고를 위한 구독형 디지털 트윈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디지털 트윈 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실제 사물을 가상세계에 쌍둥이(twin)와 같이 동일하게 구현하고, 이를 실시간 제어 및 사고 예방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다만, 초기 비용 문제로 중견·중소기업이 이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SKT는 다쏘시스템, 슈나이더일렉트릭, 아마존웹서비스(AWS), SK플래닛, 플렉시티, 위즈코어, 벡테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등 20개 업체 및 단체와 '디지털 트윈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캐스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구매한다



현대차 본격 판매 돌입
D2C 판매방식 채택
가상으로 윈스톱 지원
소통형 웹채널 첫 시도

현대자동차가 29일 온라인 발표회 '캐스퍼 프리미어'를 통해 경형 SUV '캐스퍼' 본격 판매를 시작했다.

현대차는 이날 실시간 소통형 웹채널인 캐스퍼 프리미어를 통해 가상의 캐스퍼 마을에서 펼쳐지는 '프리미어 오프닝 필름'과 현대차가 처음 시도하는 온라인 구매 과정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캐스퍼 온라인 저니필름' 등을 선보였다.

유원하 현대차 국내사업부장(부사장)은 "캐스퍼는 D2C(고객에 직접 판매·Direct to Consumer) 판매방식을 채택한 만큼, 고객들이 상품 정보와 온

라인 구매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고객 중심으로 개발했다"며 "캐스퍼만의 차별화된 상품성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차량 탐색부터 구매까지 최적의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스퍼 기본 모델은 1.0 MPI를 탑재해 최고 출력 76PS(마력), 최대 토크 9.7kgf·m, 복합연비 14.3km/l을 확보했다. 선택사양으로 운영하는 '캐스퍼 액티브'는 1.0 터보엔진과 역동적인 외장 디자인으로 구성해 최고 출력 100PS, 최대 토크 17.5kgf·m, 복합연비

12.8km/l의 동력 성능을 갖췄다. 캐스퍼의 판매가격은 기본 모델인 스마트가 1,385만원, 모던 1,590만원, 인스퍼레이션 1,870만원 등이다.

캐스퍼는 현대차 최초로 선보인 전용 웹사이트 '캐스퍼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다. 현대차는 이번 온라인 판매를 통해 고객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탐색하고 차량 구매까지 윈스톱으로 가능한 서비스 구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제품 가격과 사양 설명은 온라인 가격 메뉴를 통해 트림별 사양, 선택 품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사양 명칭을 선택하면 해당

사양에 대한 설명을 이미지·영상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는 전용 웹사이트 외에도 고객이 직접 차량 실물을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전시와 시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날부터 한 달간 용인에 위치한 브랜드 쇼룸 '캐스퍼 스튜디오'에서 모든 색상의 캐스퍼 차량과 다양한 트림의 시승 서비스를 제공하며, 카셰어링 플랫폼 소카와의 협업을 통해 전국 가까운 소카존에서 24시간 캐스퍼 시승이 가능한 '소카카셰어링 시승' 서비스도 운영한다. /서미애 기자

■ 그래픽 경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모 추이



작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3배 ↑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2,000억원에 육박하면서 3년 만에 3배로 늘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정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걷힌 증여세는 1,8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681억원) 세액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로, 해당 세액은 2016년 734억원, 2017년 681억원, 2018년 1,075억원, 2019년 1,968억원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한 기업은 1,226곳이었다.

제조업체 4분기 경기 회복세 이어간다

광주상의, 기업전망 조사
3분기 연속 기준치 상회
접종률 상승 매출증대 기대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은 지난 3분기에 이어 4분기에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가 광주지역 12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 '113'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최근 주요국 중심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코로나 백신 접종률 상승 등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체감경기 또한 호전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지난 3분기 실적은 '81'로 코로나19 재확산과 내수 및 수출입 부진 등으로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4분기 업종별 전망은 ▲비금속광물·유리(143) ▲식음료(138) ▲기계·금형(119) ▲철강·금속가공

(114) 업종이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호전을 기대했다.

비금속광물·유리 업종은 공공 및 민간재개발 사업 재개, 주택공급 확대 기대 등으로 수주 증가가 예상되면서 전분기 대비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식음료 업종은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야외활동 증가와 단체급식 재개 등으로 경기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IT·전기·전자(100) 업종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모기업 발주량 증가와 프리미엄 제품 수요증가로 체감경기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부품(100) 업종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 판매호조와 신차출시 등으로 매출 증대가 예상되나, 반도체 부품 수급불안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해 체감경기가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고무·화학·플라스틱(60) 업종은 거래처 발주감소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로 체감경기가 전분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121)은 주요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수주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110) 역시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체감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여부별로는 수출기업(110)은 글로벌시장의 수요증가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와 발주량 증가로 4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내수기업(113) 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가와 민간 및 정부투자 확대에 따른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업의 올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대내외리스크에 관한 질문에서는 '환율 및 원자재가격 변동성(70.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시장 침체(66.1%)', '금리인상 기조(26.0%)', '자금조달 여건악화(18.9%)'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애 기자

R&D 현장지원 및 인력교류를 위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전남테크노파크 업무협약식



전남테크노파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R&D 현장지원 및 인력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테크노파크 제공

전남TP, R&D 역량·현장 지원 강화

KEIT와 업무협약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 이하 전남TP)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정양호, KEIT)과 최근 R&D 현장지원 및 인력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KEIT 대전본원에서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보유한 핵심역량과 인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 전남 지역의 산업기술 R&D 역량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 전남 지역에 대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R&D 지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5년 평균 1%

미만으로 타 지역 대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약 2조5,000억원의 R&D 예산을 운용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원 프로그램에 전남 지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R&D에 대한 구조 이해와 기획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남TP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R&D 기획·평가·관리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속 전문가를 전남TP에 상주시켜 지역 내 기술개발 기업들이 중앙정부의 사업에 쉽게 접근·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창'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hotelthestar.com

천년의빛 영광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함께하세요

HOTEL THE STAR

레스토랑/바

로비

회의실

객실

에식홀

무대

웨딩 / 돌잔치 / 각종모임 / 기업행사 예약문의 010-3627-5003

HOTEL THE STAR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74 TEL. 061) 350-7900